

헤이안시대 발해사신과 악무교류*

-정월 궁중의례를 중심으로-

김 홍 래**

honglae@hotmail.com

〈 目 次 〉

- | | |
|-----------------------------|--------------------------|
| 1. 시작하며 | 3. 발해사신이 참석한 일본 정월 궁중 의례 |
| 2. 헤이안시대 일본의 화이사상과 발해 사신 빈례 | 4. 마치며 |

Key word : 발해사신(Balhae envoys), 궁중무악(Royal court dance and music), 궁중의례(Royal court rituals), 접촉(contacts), 교류(exchanges)

1. 시작하며

9세기를 전후하여 발해와 일본은 사신을 주고받으며 활발한 국제교류를 전개하고 있었다. 이 시대는 대규모 해상항해가 가능해지고 발해사와 견발해사가 왕래하면서 한시문을 비롯하여 다양한 유형문화와 무형문화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¹⁾ 그중 발해와 일본의 악무교류는 한국 고대무악의 일본 전파라는 관점에서 많은 연구자에 의해 연구되어 왔다.²⁾ 그러나 교류가 일방

* 본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NRF-2014S1A5B8035981)

** 세계민족무용연구소 전임연구원, 일본고전문학 일본문화 전공.

1) 小島憲之(1960·9) 『奈良・平安初頭文学と渤海文学との交流』『比較文学』3, p8-17. 酒寄雅志(1998·12) 『渤海と日本の交流』『歴史と地理』519, p23-32. 河添房江(2000·12) 『源氏物語の時空意識 -桐壺巻を起点として』『解釈と鑑賞』65(12), p94-101.

2) 송방송(1984·10) 『渤海樂 小考』『東洋學』14, p8-9. 송방송(1988·12) 『渤海樂의 音樂史

적 전파가 아니라 쌍방적 소통에 기반 한 문화행위라는 점에서 발해사신에 의한 일본 무악의 접촉도 반드시 연구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국과 일본의 역사학계는 고대 일본의 빈례(賓禮)에서 어떤 일본 궁중무악이 연행되었는지 규명하지 못해왔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 연희(延喜) 20년(920) 5월 12일 풍악원(豊樂院)에서 5월 16일 조집당(朝集堂)에서 각각 발해사배구(裴虜) 일행을 위한 연회가 개최되어 악무가 연주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악곡명이 기술되지 않아서 발해사신이 어떤 일본 궁중무악과 접촉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헤이안시대 일본의 정월 궁중의례를 통하여 발해사신이 경험한 일본 궁중무악을 구체적으로 규명하여 헤이안시대 국제교류의 경관을 재구성하고 고대 무형문화 국제교류의 한 단면을 밝혀보고자 한다.

본론에 앞서서 헤이안시대 일본역사서와 고전문학작품에서 발해가 ‘고려(高麗)’라고 표기되기도 한다는 점을 확인해두고 싶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고려’라는 기술에서 후삼국시대를 통일한 고려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헤이안시대 귀족계층에게 알려진 ‘고려’는 발해라고 알려져 있다. 당시 발해 사람들은 고구려의 계승국이라는 의식이 강해서 당나라에게 하사받은 ‘발해’라는 국호보다 자신들을 ‘고려’라고 자칭하고 있었다. 발해사신이 일본에 처음 파견된 『속일본기(續日本紀)』³⁾ 쇼무(聖武) 천황 신귀(神龜) 5년(728) 1월 갑인(甲寅)조 발해 무왕(武王)의 국서외⁴⁾, 동서 준닌(淳仁) 천황 천평보자(天平宝字) 3년(759) 1월 경오(庚午)조 발해 문왕(文王)의 국서⁵⁾ 등에서 이와 같은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발해 고구려계승의식은 일본 귀족사회에도 정착되어 『문덕실록(文德実録)』 보귀(宝龜) 8년(777)에 입국한 발해사에 대하여 ‘발해국이 사신을 파견했다(高麗國遣使)’라고 기술되고 있다. 고대 일본 귀족

學的 再照明 - 日本 六國史를 중심으로-』 『韓國學報』14-4, p21-22. 송방송(2000) 『韓國古代音樂의 日本傳播』 『한국공연예술연구논문선집』2,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p223-229. 허영일(2014) 『발해악무의 동아시아 전파와 일본 속 발해악의 잔영』 『일본예악무의 융합적 연구』 민속원, p97-104.

- 3) 이하 일본 역사서 본문 인용은 경제잡지사(經濟雜誌社) 『국사대계(國史大系)』에 의한다.
- 4) ‘무예를 몸에 익히고 때로는 수많은 나라를 다스리고 또한 분에 넘치는 일입니다만 제변(諸蕃)을 통치했습니다. 그리하여 고구려의 옛 영토를 부흥하고 부여의 옛 풍습을 남긴 나라를 세웠습니다.’(『續日本記』聖武天皇神龜五年正月甲寅條)
- 5) ‘발해왕 대흠무(高麗王大欽茂)。(『續日本記』淳仁天皇天平宝字三五正月庚午條)

사회에서 발해라는 국호가 널리 알려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해 사신을 ‘고려사(高麗使)’ 혹은 ‘발해객(渤海客)’이라고 부른 것은 고대 일본이 발해를 고구려의 계승국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하 사료 본문에 ‘고려’라고 기술된 부분은 헤이안시대 당시 발해와 일본의 인식에 근거하여 발해로 통일하였다.

2. 헤이안시대 일본의 화이사상과 발해사신 빈례

헤이안시대 초기 동아시아의 국제정세는 당나라를 중심으로 수많은 제도와 문물들이 주변국가에 활발하게 수용되는 시기였다. 7세기말 당나라는 책봉체제(冊封體制)와 조공무역을 통하여 제후국과 주변 국가를 지배하는 한편 기미주(羈縻州)⁶⁾ 화번공주(和蕃公主)⁷⁾ 등과 같은 다양한 국제관계를 전개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국제관계는 화이사상(華夷思想)이라는 국제적 위계질서를 배경으로 국서(國書)의 서식이나 석차(席次)와 같은 외교의례를 통해서도 구현되고 있었다.

화이사상은 고대 전한시대 이후 한민족을 신성시하고 그 외 이민족을 문화적 수준이 낮은 야만민족으로 비하하는 사고체계를 말한다. 당나라는 화이사상을 기반으로 자국 중심의 국제질서가 유지되는 지역과 국가를 각각 ‘번역(蕃域)’ ‘번국(蕃國)’이라 하고 여기서 벗어난 지역을 ‘절역(絶域)’으로 구별하고 있었다. 역대 중국 역사서의 열전에서 신라 고려 일본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을 ‘동이(東夷)’ 항목에서 다루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고대 중국은 한반도 국가와 일본을 모두 번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화이질서에 기반한 중화사상은 복속심리를 이용한 권위주의적 의례로 구현되어서 율령제도와 함께 중국 군주의 권위를 제도적으로 안정시키고 중국문화의 절대적 위상을

6) 기미정책(羈縻政策)은 중국과 우호적인 국왕 수장을 선별하여 도독(都督)·(刺史)·(県令) 등에 임명하여 이민족 수장의 통치권을 중국의 정치체제 안에서 행사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기미정책이 적용되는 지역을 기미주라고 한다.

7) 화번공주는 고대 중국 전한 시대와 당나라 시대에 이민족 수장을 화유시키기 위해 시집보내진 왕족 혹은 황족 여성이다.

만들어 갔다.

고대 일본도 한때 중국 중심의 화이질서에 편입되어 있었다. 『삼국지(三國志)』 『위지왜인전(魏志倭人伝)』⁸⁾에 의하면 히미코(卑弥呼)가 위나라에 사신을 보내와 왜왕으로 책봉되었고, 『후한서(後漢書)』 『왜전(倭傳)』에 의하면 1세기 왜왕이 광무제에게 ‘왜노국왕(倭奴國王)’으로 책봉되어 금인을 하사받았으며, 2세기에는 왜왕이 노비를 헌상했다는 기술도 있다. 이러한 일본의 대중 책봉관계는 아스카시대 쇼토쿠 태자(聖德太子)가 수나라와 대등한 국가로서 견수사를 파견하고 독자적인 소제국주의를 선언하면서 조금씩 바뀌어 가게 된다. 또한 당나라시대의 일본은 한반도 국가를 번국으로 예측시키려고 하면서도 당나라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여 조공하는 복합적인 지배와 피지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⁹⁾

이와 같이 고대 일본과 중국이 일견 대등한 국가관계로 성립할 수 있었던 것은,¹⁰⁾ 무엇보다도 수나라와 당나라가 일본을 중국에서 멀리 떨어진 ‘절역’ 국가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나라 재상 장구령(張九齡)의 문집 『당송상곡장강선생문집(唐丞相曲江張先生文集)』 권12에 기록된 「칙일본국왕서(勅日本國王書)」에 의하면 일본은 당나라에게 책봉 받지 않았지만 번국으로 쳐우되고 있었고, 당나라와 우환을 만들지 않은 예외의 나라로 평가받고 있어서 당나라 화이질서에 포함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¹¹⁾

한편 일본은 당나라의 율령제도와 궁중의례 및 화이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일본중심의 화이사상을 구축하여 스스로를 ‘중화’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일본중심의 화이사상은 필연적으로 대중국관계의 실체를 복잡

8) 이하 중국 역사서 본문 인용은 문연각(文淵閣) 사고전서(四庫全書)에 의한다.

9) 石母田正(1973) 『日本古代における國際意識について-古代貴族の場合-』 『日本古代國家論第一部』 岩波書店, p319.

10) 니시지마 사다오씨(니시지마 사다오(2008) 『동아시아세계와 책봉체제6~8세기의 동아시아』 『일본의 고대사 인식 : ‘동아시아세계론’과 일본』 역사비평사, p137-140)에 의하면 고대 일본은 수나라와 당나라를 중심으로 외교를 전개하면서도 중국의 책봉체제 안에 편입되지 않고 독자적인 외교노선을 추구하고 있었다고 논하고 있다. 그러나 고대 중국의 대외정책은 책봉체제만이 아닌 다양한 국제관계 속에서 중국 중심의 화이질서를 구축하고 있었다.

11) 본문 인용은 상무인서관(商務印書館) 『사부총간집부(四部叢刊集部)』에 의한다. ‘勅日本國王, 王明樂美御德, 彼禮義之國, 神靈書扶, 滄溟往來, 未常爲患.’

하게 만들고 있었다. 앞서 기술했듯이 당나라는 일본을 절역에 있으면서도 번국으로서 견당사를 파견하는 기특한 나라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일본 자신들도 당나라를 표면적으로 ‘번국’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당나라와 일본이 서로를 번국이라고 규정하는 모순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모순에 대하여 고대 일본은 아시아대륙과 분리된 지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당나라에 대한 국내용 인식과 대외용 처신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이중적 입장(더블 스텐다드)을 견지하고 있었다.¹²⁾

이 시기 일본의 중화사상은 조선왕조의 소위 소중화사상과 몇 가지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조선왕조의 소중화사상은 중국 명나라와 함께 세계의 중심이 되어 주변 국가를 문화적으로 종속시키고 선도하는 것이었다. 한편 헤이안시대 일본의 중화사상은 중국 당나라에 대하여 대등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그 외 주변 국가를 문화적으로 예속하려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당나라의 외교제도를 변용하여 외국사신을 영접하는 연회 공간에서 번객(蕃客)에게 관직을 수여하고 그 위계에 맞는 관복을 하사하여, 동북아시아 국가를 일본 중심의 독자적인 화이질서 속에 포용하고자 시도하고 있었다.

한편 일본중심의 화이사상은 필연적으로 한반도 국가들과의 외교관계에 있어서 마찰을 일으키게 된다. 일본에 입국한 신라사신이 제출한 국서가 일본이 요구한 국서양식에 맞지 않으면 외교의례로 영접하지 않았고, 8세기 중반부터 신라가 대등한 국가관계를 요구하고 조공국 지위에서 이탈하면서 일본 중심 화이질서에는 균열이 생기게 되었다. 발해의 경우에도 시대에 따라 국서양식이 순위 사람에게 올리는 ‘계(啓)’와 군주에게 바치는 ‘표(表)’를 오가면서 갈등을 보이다가, 결과적으로 발해가 일본이 요구하는 번국적 지위를 수용하면서 교로사 이하 체계적인 빈례가 거행되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발해는 712년부터 919년까지 20명에서 325명의 규모로 총 34차례 사행단을 파견하였고, 이에 대하여 일본은 13차례 사행단을 파견하면서 양국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갔다.

발해가 국교수립 초기에 일본 요구를 수용하여 번국으로서 활발한 외교관계를 맺은 것은 서쪽으로는 당나라의 침략과 동남쪽으로는 신라와 흑수말갈

12) 東野治之(2007) 『遣隋使から遣唐使へ』 『遣唐使』 岩波新書, p6-21.

의 침략에 대비하여 정치적 군사적 동맹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다.¹³⁾ 그러나 천장(天長) 2년(825)에 입국한 발해사신에 대하여 우대신 후지와라노 모로즈구(藤原諸嗣)가 그 본질이 상인이라고 비난하던 기사나 정관(貞觀) 14년(872)에 입정한 발해사신과 내장료 및 일반 상인들 사이에 교역이 있었다는 기사에서 발해사신의 실체는 국제무역상에 가까웠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¹⁴⁾ 또한 사신의 신분도 초기는 무관이었지만 천평보자 시대를 전후하여 문관으로 바뀌었다는 점도 발해사신의 성격 변화를 엿볼 수 있다.¹⁵⁾

발해로서는 대일 외교에 있어서 어느 정도 명분을 양보하더라도 군사적 경제적 실리를 취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발해의 실리중시 외교 전략과 신라의 국교단절에서 일본중심 화이질서의 공동화를 엿볼 수 있고,¹⁶⁾ 일본 궁중 연회에 참석한 발해 사신에게만 관직과 의복이 수여되고 발해왕에 대해서는 책봉이나 관직이 수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본과 발해의 국제적 위계질서는 연회라는 제한된 공간에서만 구현되어 일본중심의 화이질서 구축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¹⁷⁾ 결과적으로 일본의 화이사상은 대외적으로 호응을 얻지 못했지만 국내에 있어서 자국의 제국적 자부심을 정착시키는 수단으로 이용되었고,¹⁸⁾ 번국지위에 반발한 신라와 외교적 군사적 갈등을 만들면서 ‘신국사상(神國思想)’으로 변이되어 국내 결속의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¹⁹⁾

한편 고대 일본의 외국사신을 영접하는 외교의례인 빈례는 중국 의례서의 영향을 받으며 성립되어 갔다. 천평(天平) 7년(735) 견당사 기비노 마기비(吉備真備)가 『악서요록(樂書要錄)』과 함께 『현경례(顯慶禮)』로 추정되는 당나

13) 島山喜一(1968) 「渤海王国と日本との交渉」 『渤海史上の諸問題』 風間書房, p247-248.

14) 森克己(2008) 「外国使節と外国商人の差別」 『新編森克己著作集一 新訂日宋貿易の研究』 勉誠出版, p22-26.

15) 石井正敏(2001) 「初期日本・渤海交渉における一問題 -新羅征討計画と渤海-」 『日本渤海関係史の研究』 吉川弘文館, p429-450.

16) 石母田正(1973) 『日本古代國家論 官僚制と法の問題 第一部』 岩波書店.

17) 平野卓治(1985) 「律令位階制と「諸蕃」」 『日本古代の政治と制度』 続群書類聚完成会, p97-110.

18) 浜田久美子(2011) 「外交儀禮の形成」 『日本古代の外交儀禮と渤海』 同成社, p47-80.

19) 石上英一(1984) 「古代國家と對外關係」 『講座日本歴史2 古代2』 東京大学出版会, p264-265.

라 의례서 130권을 가지고 귀국하였고, 천평승보(天平勝寶) 4년(752) 다시 견당사로 파견되어 『대당개원례(大唐開元禮, 이하 개원례)』를 가지고 귀국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²⁰⁾ 또한 9세기말 『일본국현재서목록(日本國現在書目錄)』에 의하면 『강도집례(江都集禮)』, 『영휘례(永徽禮, 현경례)』, 『개원례』 세 가지 중국의례서가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의례서를 통하여 나라시대 일본은 율령 및 율령격식에 이어 당나라 궁중의례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후지와라노 나가마로(藤原仲麻呂)를 중심으로 당나라 제도와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본의 외교의례도 새롭게 정비되어 갔다.²¹⁾ 중국 『현경례』의 경우 산실되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지만, 732년에 성립한 『개원례』, 『빈례』는 현재까지 남아있어서 고대 일본의 외교의례가 이를 모방하는 형태로 정비되어 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자면 『개원례』, 『빈례』에 규정된 여섯 의례 중에서 ‘번주(蕃主)가 배알하는 의례’와 ‘황제가 번사(蕃使)의 표(表) 및 폐(幣)를 수리하는 의례’가 있다. 이에 대하여 『속일본기(續日本紀)』 천평승보(天平勝寶) 4년(752) 6월 16일조에서 신라 왕자 김태렴(金泰廉)이 귀국할 때 이후 신라 국왕이 직접 입조한 경우에는 사(辭)를 주상하고 사신이 입조한 경우에는 표문(表文)을 제출하라는 칙령을 내리고 있는데 이는 앞서 기술한 당나라 『빈례』에서 ‘번주’와 ‘번사’가 제출하는 국서양식을 구분한 것을 일본 외교의례에서 수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같은 일본의 외교의례는 일본중심의 화이질서를 구축하려 한 것으로, 이후에도 일본은 『속일본기』 보귀(寶龜) 원년(770) 3월 4일조 조공국의 국서양식을 갖추지 않은 신라 사신 김초정(金初正)에 대해서 빈례로 영접하지 않고, 『속일본기』 보귀 3년(772) 2월 28일조 발해 사신 일만복(壹萬福)에 대해서도 유사한 이유로 빈례로 영접하지 않으면서 양국에 대하여 조공국의 국서양식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일본의 요구를 거부한 신라와는 국교가 단절된데 비하여 이를 수용한 발해와의 외교관계는 발해가 멸망할 때까지 긴밀하게 이어지게 된다. 고대 일본은 빈례를 통하여 주변 국가 사신에게 일본 중심의 화이질서를 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고 할

20) 坂本太郎(1964) 『儀式と唐礼』 『日本古代史の基礎的研究 下』 東京大学出版会, p67-75.

21) 大隅清陽(2006) 『礼と儒教思想』 『列島の古代史七 信仰と世界観』 岩波書店, p89-119.

수 있다.²²⁾

이후 고대 일본의 외교의례 빈례는 8세기에서 10세기에 걸쳐서 홍인격식(弘仁格式) 정관격식(貞觀格式) 연희격식(延喜格式)²³⁾ 소위 삼대격식의 성립과 병행하여 제도적으로 정착되어간다. 9세기 전반 일본은 자국이 동이의 소제국이라는 관념을 구축하고 발해를 유일한 번국으로 규정하는 한편 외교 제도에 있어서 빈례의 체계화를 추진하여, 발해사신을 정기적으로 영접하는 빈례를 홍인(弘仁) 13년(822)을 전후하여 재편하고 승화(承和) 8년(841)에 『치부식변객조(治部式蕃客条)』에서 『태정관식변객조(太政官式蕃客条)』 중심의 외교체제로 외교영접기능을 강화하게 되었다.²⁴⁾ 다음은 ‘태정관식변객조’의 일부이다.

무릇 빈객이 입조하면 재문사 장객사 영귀향객사 각각 2명, 수사 각 한명, 통사 각 한명을 임명한다. (입경 시에는 재문사와 영객사를 겸하도록 임명한다) 또한 교로사 위로사 로문사 사의복사에서 각 1명, 선명사 공식사 각 2명, (풍악원 각 1명, 조집당 각 1명) 사칙서사 사태정관첩사 각 2명을 아즈카리(預)로 사정한다. (사 1명은 궁첩사를 따라 객관에 도착한다)²⁵⁾

9세기 이후 거행된 일본의 빈례는 『연희식(延喜式)』 『태정관식변객조』 항목에 구체적인 집행 순서와 방법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발해사에게 실제로 집행된 빈례를 『속일본후기』 승화 8년에 입조한 발해사 하복연(賀福延)에 대한 기사를 중심으로 재구성하자면, 12월 22일 발해사가 상륙한 지방으로 재문사(在問使)를 파견하여 정식 사신인 빈객(賓客) 자격을 심사하고,²⁶⁾ 다음해

22) 石井正敏(2001) 「光仁・桓武朝の日本と渤海」 『日本渤海關係史の研究』 吉川弘文館, p462-484.

23) 격식이란 율령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격(格)은 율령을 수정 보충하는 법령, 식(式)은 율령의 집행세칙을 말한다.

24) 浜田久美子(2003) 「古代日本における賓礼の受容」 『日本と渤海の古代史』 山川出版社, p143-154.

25) 凡蕃客入朝、任存問使、掌客使、領歸郷客使各二人、隨使各一人、通事一人(入京之時、令存問使兼領客使) 又預差定郊勞使、慰勞使、勞問使、賜衣服使各一人、宣命使、供食使各二人(豐樂院各一人、朝集堂各一人) 賜勅書使、賜太政官牒使各二人(史一人隨宮牒使到客館)

26) 中野高行(2008) 「日本古代における外国使節処遇の決定主体」 『日本古代の外交制度史』

3월 27일 교로사(郊勞使)를 파견하여 교토 홍려관(鴻臚館)까지 안내하여 안치 시키게 된다. 4월 2일 발해사는 천황에게 국서와 조공품을 진상하고 4월 5일과 9일 풍악원(風樂院)과 조집당(朝集堂) 등에서 연회가 개최되어 관직과 의복을 하사받고 4월 12일 천황의 국서와 하사품을 받은 뒤 영객사(領客使)의 안내로 자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3. 발해사신이 참석한 일본 정월 궁중의례

한편 당나라에 입국한 각국의 변객들은 당나라의 화이사상과 예악질서에 수용되어 외국사신을 영접하는 빈례를 받는 한편, 천신과 지신에게 제사하는 길례(吉禮), 향연과 축하연 같은 가례(嘉禮)에도 신하 자격으로 출석할 수 있었다.²⁷⁾ 고대 중국의 『개원례』에 의하면 ‘가례’인 정월 초하루 의례나 동지 의례와 같은 궁중의례에 주변국에서 파견된 변객이 출석하고 있었다. 이는 율령제 국가에서 가례가 일종의 외교의례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²⁸⁾ 당나라 율령제와 외교의례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헤이안시대 일본에서도 이와 같은 당나라의 선례를 계승하여 궁중행사인 가례에 발해사신이 참석하고 있었다. 본 장에서는 이중 발해사신이 참석한 정월 궁중의례를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1) 정월 원일절회

발해사신이 참석한 대표적인 가례는 정월 조하(朝賀)의례이다. 조하란 율령제국가에서 정월 초하루 아침 천황이 동궁이하 문무백관에게 새해인사를 받는 궁중행사이다. 당나라 두우(杜佑)가 편찬한 『통전(通典)』에 의하면 한나라 고조가 처음으로 조하의례를 거행했다고 한다.²⁹⁾ 일본에서도 『일본서기』 대

岩田書院, p233-236.

27) 金子由紀(2002·11) 『北宋の大朝会儀禮』 『上智史学』47, p49-85.

28) 田島公(1985·5) 『日本の律令国家の「賓禮」-外交儀禮より見た天皇と太政官-』 『史林』 68-3, p39.

29) 이하 본문인용은 문연각(文淵閣) 사고전서(四庫全書)에 의함.

화(大化) 2년(646)에 처음으로 조하의례가 거행된 것으로 기술되고 있다. 『속일본기』 대보(大宝) 원년(701)에 조하의례가 비교적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어서 이 시기를 전후하여 의례로서 정착되었다고 생각한다. 정월 초하루 천황은 아침부터 사방배(四方拜) 공어약(供御藥) 조하 순으로 의례를 거치고 마지막으로 원일절회(元日節會)를 통하여 신하에게 연회를 베풀었다. 일본의 조하의례는 당나라의 그것을 수용하였기 때문에 큰 틀에 있어서 유사하지만, 주해(奏賀) 문언에서 성을 생략하고 관직명과 이름만을 신하가 각자 주상하는 중국에 비하여, 일본은 이름이 생략된 ‘양인공동체(良人共同體)’의 집단적 호칭으로 주상되고 있고 천황이 거둔 단상에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인원이 달랐다는 점 등에서 일본의 독자적인 측면을 찾을 수 있다.³⁰⁾ 다만 당나라 조하의례에 변색이 출석하는 것이 당나라 중심의 화이질서를 확인하는 의미가 있었듯이,³¹⁾ 일본으로서는 자국 정월 조하에 발해사가 참석하는 것은 일본중심의 국제적 화이질서를 가시적으로 확인하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흥인 12년(821)에 후지와라노 후유츠구(藤原冬嗣)가 칙령을 받아 만든 『홍인내리식(弘仁内裏式)』의 정월 조하 조항에는 변색이 가례인 원일절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빈례와 달리 발해사가 가례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입경시기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771년 6월 일본에 도착한 발해사 일만복 일행 같은 경우는 이례적이지만, 발해사는 통상적으로 늦가을부터 겨울에 걸쳐서 북쪽에서 불어오는 계절풍을 이용하여 동해를 향해하여 늦은 가을부터 초봄에 일본에 도착하였고 9세기에는 12월이나 1월에 일본에 도착하고 있었다. 『속일본기』와 『일본후기』에 의하면 발해사는 신귀 5년(728) 1월 3일을 처음으로 천평(天平) 12년(740) 천평보자(天平宝字) 3년(759) 동 4년(760) 보자 7년(763) 보귀 3년(772) 보귀 10년(779) 연력(延曆) 18년(799) 흥인(弘仁) 2년(811) 흥인 6년(815) 흥인 11년(820) 흥인 13년(822) 총 12회 정월 초하루 궁중의례에 참석하고 있다.³²⁾ 특히 흥인 5년에 입국한 발해사신은

30) 藤森健太郎(1991·12) 『日本古代元日朝賀儀禮の特質』 『史学』, p76-82.

31) 古瀬奈津子(2003) 『遣唐使の見た中国』 吉川弘文館, p179.

32) 헤이안 초기까지 일본과 외교관계를 유지하던 신라의 경우 문무(文武) 2년 1월 1일을 처음으로 대보(大宝) 2년 경운(慶雲) 3년 령귀(靈龜) 1년 보귀(寶龜) 11년 총 5회 정월 초하루 궁중의례에 참석하고 있다.

다음해 정월 초하, 7일 백마절회, 16일 답가 등에 모두 참석하고 있다.

조하의례가 끝난 다음 거행된 원일절회(元日節會)에서는 신하와 발해사에 대하여 연회가 베풀어지고 무악이 연주되었다. 장소는 원래 풍악원(豊樂院)에서 거행되었지만 824년경부터 자신전(紫宸殿)에서 거행되게 되었다. 『홍인내리식』에 의하면 ‘원일절회’ ‘백마절회’ ‘답가절회’에서는 국서(國栖)의 가적(歌笛), 대가(大歌), 입가(立歌), 내교방의 여악을 각각 연주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헤이안후기 오에 마사후사(大江匡房)의 의례서 『강가차제(江家次第)』에 의하면 삼천 의례에서 만세악(萬歲樂) 지구(地久) 윤천악(潤天樂) 하전(賀殿) 연희악(延喜樂)이 악인(樂人)이 정원에 서서 연주하는 입악(立樂)으로 연무되었다고 한다.



萬歲樂



延喜樂

<「左方の舞」, 「右方の舞」, 北爪有郷・高島千春(1905)『舞樂図』芸艸堂>³³⁾

만세악은 평조(平調)의 좌방악으로 원래 6인 여악이었지만 현재는 4인 남악으로 연무되고 있다. 현명한 천자가 나오면 봉황이 운다는 전설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곡으로 수나라 양제(煬帝) 당나라 측천무후가 만들었다는 설이 있다. 전용 의상으로 상장속(常裝束)에 조갑(鳥甲)을 쓰고 오른쪽 옷소매를 벗은 편견단(片肩袒)으로 춤추게 된다. 지구는 고려쌍조(高麗雙調)의 우방악으로

33) 獺祭書屋 <http://dassai2.p2.weblife.me/p8/scrap0228.html> (2015.2.5)

4인무이다. 전용 의상으로 습장속(襲裝束)에 가면을 쓰고 모자(牟子)와 별갑(別甲)을 사용한다. 하전은 견당사 후지와라노 사다토시(藤原貞敏)가 당나라에서 전했다는 무악으로, 일월조(壹越調) 4인무의 좌방악이다. 전용 의상으로 좌방습장속(左方襲裝束)에 별갑(別甲)을 쓰고 편견단으로 춤을 춘다. 연희악은 고려일월조(高麗壹越調)의 우방악 4인무로 아츠자네 왕자(敦実親王)가 춤을 후지와라노 다다후사(藤原忠房)가 악곡을 만들었다고 한다. 전용 의상으로 습장속에 조갑을 쓰게 된다. 다만 17세기 야나기와라 스케가도(柳原資廉)가 편찬한 『근대연중행사세기(近代年中行事細記)』에 의하면 원일절회에 쌍조(雙調)의 호음주파(胡飲酒破)와 주호자(酒胡子) 두 곡이 입악으로 연무되어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연주되는 악곡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정월 백마절회

두 번째로 발해사가 참석한 정월 궁중의례는 1월 7일 풍악원(후기에는 자신전)에서 개최된 백마절회(白馬節會)이다. 중국의 음양오행설에 있어서 말은 해의 짐승이고 청색은 봄을 상징하는 색이었다고 한다.³⁴⁾ 따라서 정월에 청마(靑馬)를 보면 한해 액운을 피할 수 있다는 중국 연중행사를 수입한 것으로 초기에는 ‘청마절회(靑馬節會)’라고 표기하다가 10세기 초 무라카미 천황 시대에 ‘백마절회’라고 기술하게 되었다. 현대와는 달리 고대 일본에서 청색은 채도에 있어서 폭넓게 사용되어 ‘청마’는 청색을 띤 호모(芦毛)의 흑마로 실제로는 회색빛에 가까웠지만 액을 물리치기에는 백색이 적합하다는 생각이 보편화되면서 ‘백마’라고 기술되기 시작한 것 같다. 다만 읽는 방법은 ‘아오우마’로 현대까지 변하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헤이안시대 말기에는 궁중의례가 쇠퇴하면서 사용되는 말 수가 감소되다가 오닌의 난(応仁の乱) 이후에는 명맥이 끊어지게 된다. 백마절회에도 악인에 의해 평조의 삼태염 급(三台塩急)과 계덕(鷄德)이 연주되어 궁중행사의 분위기를 고취하고 있었다.

34) 참고로 여름은 적색, 가을은 백색, 겨울은 흑색이다.



皇帝破陣樂



喜春樂

『흥인내리식』 정월 칠일 조항에는 번객과 이적(夷狄)이 백마절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기본적인 의례는 21마리의 백마가 궁중을 순회하고 군신에게 개최되는 연회 이외에도 어궁주(御弓奏, 미타라시노소)와 서위(叙位) 등이 있었다. 이중 어궁주는 병부성(兵部省)이 천황에게 궁을 헌상하여 천황의 통수권과 군사적 복종을 상징하는 의례로 구조적으로 사례(射禮)와 도궁(賭弓)과 관계된 의례였다고 추측되고 있다. 발해사신은 흥인 13년(822)까지 백마절회(白馬節會)에 참석하고 있었다.

『강가차제』에 의하면 천황이 백마를 어람한 뒤 일헌 의례에서 국서의 주악(國栖の奏)을 연주하고 삼헌(三獻) 의례에서 내교방(內教坊)의 여악(女樂)이 연주된 다음 무대 위에서 황제파진악(皇帝破陣樂) 옥수후정화(玉樹後庭花) 적백도리화(赤白桃李花) 만세악(萬歲樂) 희춘악(喜春樂) 등과 같은 궁중무악이 연무되고 있었다. 황제파진악은 일월조의 좌방악으로 당악 4대곡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춤은 경우에 따라 6인무 혹은 4인무로 연무된다. 당나라 현종(玄宗)이 즉위할 때 연무되었다고 전해지는 악무곡이며 전용 의상은 습장속을 입게 된다. 적백도리화는 황종조(黃鐘調)의 좌방악으로 의상은 만회장속(緜繪裝束)에 권영관(卷纓冠)을 쓰고 오이가케(老懸)와 가자시(挿頭花)를 부착하였다. 당나라 고종(高宗) 시대에 만들어져서 일본에 전해진 악곡으로, 주로 3월 3일 곡수연(曲水宴)에서 내교방 무녀들이 연무한 무악으로 알려져 있다. 희춘

악은 황중조의 좌방악으로 작곡가는 진서흥공(陳書興公)설과 대안사(大安寺) 승려 안조(安操)설이 있다. 의상은 만회장속에 권영관을 쓰고 가자시를 끔게 된다.

(3) 정월 답가절회

세 번째로 발해사가 참석한 정월 궁중의례는 정월 16일에 개최된 답가절회(踏歌節會)이다. 답가는 남녀가 발로 땅을 밟으며 박자에 맞춰 춤추고 노래하는 집단무용으로 정월에 답가를 추어서 땅에 있는 잡신을 몰아내고 풍년과 번영을 기원하는 주술적 의미를 가진 악무였다. 답가절회는 천황이 자신전에서 남답가(男踏歌)와 여답가(女踏歌)를 어람하는 행사로 정월 14일과 15일에 남답가가 16일에 여답가가 각각 거행되었다. 답가가 끝난 다음에는 5위 이상의 군신들에게 연회가 베풀어졌다.

일본 역사서에 답가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일본서기』 지토(持統) 천황 7년(693) 정월 16일조 ‘한인 등이 답가를 연주했다(漢人等奏踏歌)’라는 기사이다. 또한 지토 천황 8년(694) 정월 17일조에는 ‘한인’이 19일조에는 ‘당인(唐人)’이 답가를 연주했다는 기사가 보인다. 답가가 중국인에 의하여 일본에서 처음 연무되었다는 점에서 일본 궁중무용 답가는 중국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다. 답가절회의 원형은 중국 『조야첨재(朝野僉載)』에 기록된 ‘원소관등(元宵觀燈)’³⁵⁾이라는 설³⁶⁾과, 수나라 양제(煬帝) 시대에 정월 낙양에서 거행되던 ‘백희(百戲)’라는 설³⁷⁾이 있다. 당나라 ‘원소관등’의 경우 도회적 관등행사에 답가가 융합되어 있었지만 일본의 경우 관등행사와 답가가 각각 분리 수용되어 관등행사는 불교행사로 거행되다가 여름 아오모리의 네부타마츠리와 같은 지역행사로 정착되었고 답가는 정월 궁중행사 답가절회로 정착되었다. 중국 일부 지방에서는 ‘원소관등’에 병을 쫓아버리고

35) ‘원소관등’은 당나라 시대 정월 15일 집 앞에 등롱(燈籠)을 걸어 장식하고 화려한 옷을 차려입은 남녀가 춤을 추며 밤을 새는 축제로, 오늘날 아오모리현의 네부타마츠리(ねぶた祭り)와 아키타현의 간토마츠리(竿燈祭り)의 원형으로 알려져 있다.

36) 浅野通有(1965·6) 『先天二年の踏歌・踏歌と元宵觀燈及び百戲陳列との関連』 『國學院雜誌』66(6), p77-89.

37) 平間充子(2005·12) 『煬帝の百戲と日本の正月月中旬饗宴儀禮・儀禮における奏樂の政治的意義について』 『東洋音楽研究』71, p47-51.

재액을 물리치기 위해 여성들이 줄을 지어 길을 걷고 다리를 건너며 돌아다니는 ‘주백병(走百病)’이라는 풍습이 있었다.³⁸⁾ 이는 조선시대 정월 대보름에 다리를 밟으면 다리병을 앓지 않는다는 세시풍속 다리밟기와 답교놀이로 이어지고 있다. 필자는 여성들이 줄을 지어 곳곳을 돌아다니며 액을 물리치는 정월 행사라는 점에서 일본의 여담가가 중국의 주백병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스카시대와 나라시대의 경우 정월 15일에는 ‘어신(御薪)’이라고 하여 천황에게 장작을 진상하는 연중행사가 있었고, 답가는 정월이외에 거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아직 연중행사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속일본기』 천평 14년(742) 1월 16일조 대안전(大女殿) 연회에서 오절무(五節舞) 다음 순서로 소년 소녀들이 답가를 추게 했다는 기사가 있어서 이 시기를 전후하여 어느 정도 궁중행사의 하나로 정착되었다고 추정되고 있다.³⁹⁾ 이후 답가는 고묘(光明) 황후를 섬기는 도래인 계열 여유(女孺)와 내교방에서 담당하게 되면서 대표적인 궁중악무로 자리 잡게 되었다.⁴⁰⁾

한편 『흥인내리식』에는 번객이 입조한 경우 시종(侍從) 및 육위(六位) 이하도 모두 참석한다고 기술되어 있어서 답가절회에 발해사신이 참석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실제로 답가절회에 발해사신이 참석한 기사는 8세기 중반을 전후해서 보이기 시작한다. 『속일본기』 천평보자 3년(759) 1월 18일조에는 발해사신 양승경(揚承慶)이 정3품을 하사받고 연회가 개최되었는데, 무대 위에서 여악이 연주되고 내교방이 정원에서 답가를 연무했다고 한다. 동서 천평보자 7년(763) 1월 17일조에는 5품 이상 관인 및 발해사신과 문무백관에게 연회를 베풀어 당나라 토라(吐羅) 임읍(林邑) 준인(隼人) 등의 악무가 연주된 다음 내교방에서 답가를 연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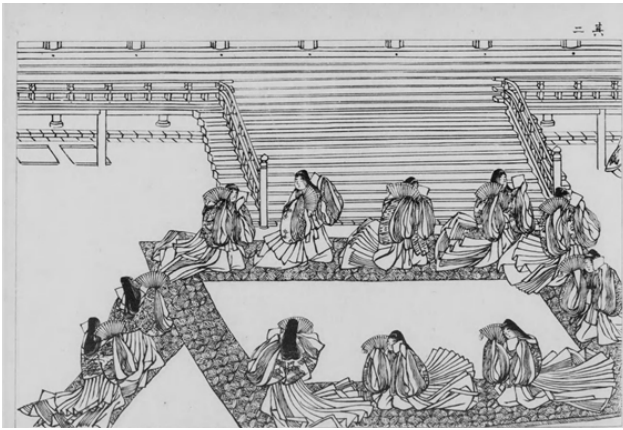
또한 『일본후기』 연력 18년(799) 1월 16일조 대극전(大極殿)에서 군신과 발해사신에게 연회를 베풀 다음, 정원에 줄을 서서 답가를 추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외에도 『일본후기』 흥인 6년(815) 1월 16일조, 『유취국사(類聚國史)』 흥인 11년(820) 1월 16일조, 13년(822) 1월 16일조에도 각각 군신과 발해사신

38) 吉田隆英(1986·10) 『元宵走百病考--明代を中心にして』 『東方宗教』68, p65-85.

39) 池田弥三郎(1962) 『踏歌及び神楽』 『日本芸能伝承論』 中央公論社.

40) 藤原茂樹(1999·2) 『奈良時代の踏歌-夜の歩み-』 『芸文研究』77, p87-95.

앞에서 답가를 추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중에서 흥인 13년 1월 16일조의 경우 발해사신 왕문구(王文矩)가 타구(打毬)를 해서 하사받은 비단으로 악무 내기를 해서 소(所)와 사(司)에서 각각 음악을 연주하고 발해사신이 주도하여 춤을 추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후 천력(天曆) 시대에 한때 답가가 중지되기도 했지만 거의 매년 14일에 남답가가 16일에 여답가가 거행되고 있었다. 이후 내란이 이어지고 궁중의례가 쇠퇴하면서 영관(永觀) 원년(983) 1월 14일 이후 남답가는 중지되었고, 여답가만 에도시대까지 명맥을 이어가게 된다.⁴¹⁾



<「踏歌」田中有美 編(1920)『年中行事繪卷考 卷6』田中文庫⁴²⁾

구체적인 의례 순서는 남답가의 경우 자신전 서쪽에서 시작하여 선화문(仙華門)을 지나 이동한 다음 청량전 정원에서 의례가 거행되었다. 무인(舞人)은 고건자(高巾子)를 머리에 쓰고 가자시를 한 뒤 답가를 부르며 남북으로 세 번 왕복하고 궁중 밖으로 나온 다음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답가를 부르다가

41) 『일본기략(日本紀略)』에 의하면 남답가는 천황이 석청수팔번궁(石清水八幡宮)에 거동할 때도 거행되면서 지방 신사에도 전파되었다. 현재 나고야시 아츠다신궁(熱田神宮) 답가신사(踏歌神事)의 경우 역대 천황이 아츠다신궁에 거동한 기록은 없어서 직접적인 파급은 아니고, 가마쿠라시대에 다른 신사에서 전해지던 남답가가 간접적으로 전파 복원된 것으로 추측된다.

42) 国立国会図書館, 近代デジタルライブラリー. <http://kindai.ndl.go.jp/info:ndljp/pid/966668> (2015.2.5)

새벽에 궁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여담가는 내교방 기녀이외에도 궁중 안에서 선발된 여성들로 40명의 무기(舞妓)를 구성하여 자신전 정원에 큰 원을 그리며 깔린 대자리 길을 따라 줄지어 춤을 추며 진행하여 세 번 돌고 다시 궁중 안을 돌아다니다가 교서전(校書殿) 앞에서 풍년을 기원하는 한시를 노래한 다음 퇴장하게 된다. 가마쿠라시대 후기의 역사주석서 『석일본기(釋日本紀)』 권15 ‘주답가(奏踏歌)’에 의하면 답가 노래 마지막에 반드시 ‘요로즈 도세아라레(万年阿良禮)’라고 되풀이 말하며 퇴장했기 때문에 답가를 ‘아라레바시리(阿良禮走)’라고 속칭했다고 한다.

에도시대의 궁중의례를 그린 『공사록부도(公事錄附圖)』에 의하면 자신전 남쪽 정원에 대자리를 둥글게 깔아놓고 주니히토에(十二單)를 입은 무녀 두 명이 부채를 들고 도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또한 『연중행사회권고(年中行事繪卷考)』에 그려진 답가 그림에 의하면 다수의 무녀들이 부채를 들고 정원 가운데에 깔린 대자리 길을 따라 줄지어 걸어가며 춤을 추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러한 도상자료에서 일본 답가는 줄지어 춤추는 집단무용이었다고 추측된다.



地久



賀殿

『강가차제』에 의하면 천황이 답가를 어람한 뒤 삼헌(三獻) 의례에서 각각 무용의상을 입고 좌무로 만세악 하전, 우무로 지구 연희악이 입악으로 연무되고 있었다. 한편 17세기 아베 스에히사(安倍季尚)의 아악서 『악가록(樂家錄)』

에 의하면 답가절회에서 입악과 무악이 연주되어서 입악은 하전 급(急), 주호자(酒胡子), 호음주(胡飲酒)가 연주되고, 무악은 진모(振鉞), 만세악, 연희악, 도리화(桃李花), 등전악(登殿樂),릉왕(陵王), 납증리(納曾利)가 연무되었다고 한다. 앞서 기술한 원일절회의 무악과 같이 답가절회에서 연무되는 무악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연주되는 악곡이 바뀌었다고 추측된다. 다만 이와 같은 기록을 통하여 답가절회에서는 중심 행사인 답가 이외에도 다양한 무악이 연무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정월 사례

이외에 발해사신이 참석했던 정월 궁중행사로 사례(射禮)가 있다. 사례란 정월 17일 궁중에서 거행되던 활쏘기시합으로, 『양로령(養老令)』 『잡령(雜令)』에 의하면 정월 중순에 거행되는 대사(大射) 의례로 규정되어 친왕이하 위계를 가진 모든 신하가 활을 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다. 사례는 앞서 기술한 백마절회에서 천황에게 궁을 헌상하는 어궁주 의례와 연계되어 천황에 대한 군사적 수호와 의례적 질서를 구현하게 된다.⁴³⁾ 『일본서기』에 의하면 세이네(清寧) 천황 4년(483) 9월 1일조에 일본 궁중에서는 활쏘기시합이 있었다고 전해지지만, 정월 17일의 궁중연중행사로는 덴무 천황 4년(675) 1월 17일 조의 활쏘기시합부터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사례에 발해사신이 참석한 첫 기록은 천평 12년(740) 1월 17일조 기사로, 천황이 대극전 남문에 거둥하여 대사를 어렵하였는데, 5위 이상의 관인이 모두 활을 쏜 다음 발해사신 이진몽(己珍蒙) 등에게 명하여 활을 쏘게 했다고 한다. 천평보자 4년(760) 1월 17일조 천황이 문무백관에게 연회를 배풀고 번객을 불러 사례를 관람하도록 했다는 기록이 있고, 보귀 10년(779) 1월 18일조에도 발해사신이 사례에 참석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 외에도 연력 18년(799) 1월 17일조 5위 이상 관인이 활을 쏜 다음 발해사신이 활을 쏘았다는 기록, 흥인 2년(811) 1월 17일조 풍악원에서 사례를 어렵하는데 발해사신이 발해할로 추정되는 각궁(角弓)으로 활을 쏘았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와 같이 천황에 대한 군사적 수호와 의례적 질서를 구현하는 사례 궁중의례에 발해사신이

43) 大日方克己(2008) 『古代国家と年中行事』 講談社学術文庫, p321.

참석하는 것은 발해와의 군사적 동맹관계를 확인하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⁴⁴⁾

앞서 기술한 원일절회 백마절회 답가절회와는 달리 사례에는 아악이나 무악이 연주되지 않았다. 다만 사례 다음 날에 개최되는 도궁(賭弓)의 경우 승부악으로 일본 궁중무악이 연무되고 있었지만, 발해사신 참석을 명기한 의례서나 역사서를 확인할 수 없었다.

4. 마치며

이상 본 논문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사례의 경우 무악이 연무되지 않았지만, 헤이안 시대 원일절회에서는 만세악 지구 율천악 하전 연희악 등이, 백마절회에서는 황제파진악 옥수후정화 적백도리화 만세악 희춘악 등이, 답가절회에서는 답가 이외에도 만세악 하전 지구 연희악 등이 각각 연무되고 있었고, 이러한 정월궁중행사에 참석한 발해사신은 이와 같은 일본 궁중무악과 접촉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헤이안시대 일본은 당나라의 빈례와 가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자국의 궁중행사를 격식화하여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었고, 이때 각 궁중행사에 특정 일본 궁중무악을 관례적으로 연무하며 독자적인 예악사상(禮樂思想)과 소제국주의를 시각적으로 구현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유취국사(類聚國史)』 보귀 8년(777) 5월 7일조에는 천황이 중각문(重閣門)에서 기사(騎射)를 어람하는데 발해사신 사도몽(史都蒙) 등을 불러 전무(田舞)를 같이 관람하고 발해사신이 자국 악무를 연주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일본삼대실록(日本三代實錄)』 원경(元慶) 7년(883) 2월 21일조에는 발해사신에게 임읍악(林邑樂)을 보여주기 위하여 대안사(大安寺)에서 악인 107명을 연습시키고 있고, 동년 5월 3일 풍악전(豐樂殿)에 발해사를 위해 베푼 연회에서 아악료 악사가 고(鼓)와 종(鐘)을 연주하고 내교방(內教坊)에서 여악을 연주했으며, 『부상략기(扶桑略記)』 연희 19년(919) 12월 16일조에는 내교

44) 大浦一晁(2012·3) 「日本古代における「射」の変遷とその意義」『歴史研究』58, p43.

방(內教坊)에서 발해사신 연회의 무인(舞人)을 선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록을 통해서도 발해사신이 일본 궁중무악과 활발하게 접촉하고 무악을 통하여 소통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발해사신을 통하여 발해계통 무악인 ‘신말갈(新靺鞨)’이 일본 궁중무악으로 정착되는 한편으로, 45) 일본 궁중무악에 관심을 가진 발해사신이 스스로 몸에 익혀서 발해에 전래했을 가능성이나, 총 13차례 일본에서 파견된 견발해사를 통하여 일본 궁중무악이 발해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엿보이고 있다.

견당사와 함께 헤이안시대 일본의 활발한 국제교류를 구성하고 있었던 견발해사를 통하여 일본 궁중무악이 발해에서 연무되었다는 구체적인 역사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다만 『구당서(旧唐書)』 『북적열전(北狄列傳)』 발해말갈 항목에 당나라 대종(代宗) 대력(大曆) 12년(777) 정월에 발해가 사신을 파견하여 일본국 무녀(舞女) 11명을 바쳤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아마도 일본 내교방 여악 무녀가 발해에 파견되었다가 다시 당나라에 헌상된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송나라 왕응린(王応麟)이 만든 유서(類書) 『옥해(玉海)』 108권에는 당나라 선종(宣宗) 대중(大中) 7년(853) 4월에 일본이 왕자를 파견하여 보기(寶器)와 악무를 마쳤다는 기록이 있다. 이는 일본 왕자가 중심이 된 견당사 사행단에 악인이 포함되어 파견되었고 당나라 궁중에서 일본 궁중무악이 연무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같이 일본 궁중무악은 견발해사를 통하여 발해로 유입되고 발해를 경유하여 당나라로 전파되었으며 또한 견당사를 통하여 당나라에 직접 유입되고 있었다. 헤이안시대 일본 궁중무악은 국제적 교류를 통하여 동북아시아 각국으로 파급되고 있었던 것이다.

<参考文献>

- 니시지마 사다오(2008) 『동아시아세계와 책봉체제-6~8세기의 동아시아』 『일본의 고대사 인식 : ‘동아시아세계론’과 일본』 역사비평사, p137-140.
 송방송(1984·10) 『渤海樂 小考』 『東洋學』 14, p8-9.
 송방송(1988·12) 『渤海樂의 音樂史學的 再照明 - 日本 六國史를 중심으로 -』 『韓國學』

45) 酒寄雅志(1998·6) 『雅樂「新靺鞨」にみる古代日本と東北アジア』 『唐代史研究』 1, p99-103.
 전덕재(2014) 『일본 고대 무악 고려악의 성립과 성격』 『일본 禮樂舞의 융합적 연구』 민속원, p77.

- 報』14-4, p21-22.
- 송방송(2000) 「韓國古代音樂의 日本傳播」 『한국공연예술연구논문선집』2, 한국예술종합학교전통예술원, p223-229.
- 전덕재(2014) 「일본 고대 무악 고려악의 성립과 성격」 『일본 禮樂舞의 융합적 연구』 민속원, p77.
- 허영일(2014) 「발해악무의 동아시아 전파와 일본 속 발해악의 잔영」 『일본 예악무의 융합적 연구』 민속원, p97-104.
- 浅野通有(1965・6) 「先天二年の踏歌 -踏歌と元宵観灯及び百戲陳列との関連」 『國學院雜誌』66(6), p77-89.
- 池田弥三郎(1962) 「踏歌及び神楽」 『日本芸能伝承論』 中央公論社.
- 石井正敏(2001) 「光仁・桓武朝の日本と渤海」 『日本渤海関係史の研究』 吉川弘文館, p462-484.
- 石井正敏(2001) 「初期日本・渤海交渉における一問題 -新羅征討計画と渤海-」 『日本渤海関係史の研究』 吉川弘文館, p429-450.
- 石上英一(1984) 「古代国家と対外関係」 『講座日本歴史2 古代2』 東京大学出版会, p264-265.
- 石母田正(1973) 「日本古代における国際意識について-古代貴族の場合-」 『日本古代国家論 官僚制と法の問題 第一部』 岩波書店, p319.
- 大浦一晃(2012・3) 「日本古代における「射」の変遷とその意義」 『歴史研究』58, p43.
- 大隅清陽(2006) 「礼と儒教思想」 『列島の古代史七 信仰と世界観』 岩波書店, p89-119.
- 大日方克己(2008) 『古代国家と年中行事』 講談社学術文庫, p321.
- 金子由紀(2002・11) 「北宋の大朝会儀礼」 『上智史学』47, p49-85.
- 河添房江(2000・12) 「源氏物語の時空意識 -桐壺巻を起点として」 『解釈と鑑賞』65(12), p94-101.
- 小島憲之(1960・9) 「奈良・平安初頭文学と渤海文学との交流」 『比較文学』3, p8-17.
- 古瀬奈津子(2003) 『遣唐使の見た中国』 吉川弘文館, p179.
- 坂本太郎(1964) 「儀式と唐礼」 『日本古代史の基礎的研究 下』 東京大学出版会, p67-75.
- 酒寄雅志(1998・6) 「雅楽『新靺鞨』にみる古代日本と東北アジア」 『唐代史研究』1, p99-103.
- 酒寄雅志(1998・12) 「渤海と日本の交流」 『歴史と地理』519, p23-32.
- 島山喜一(1968) 「渤海王国と日本との交渉」 『渤海史上の諸問題』 風間書房, p247-248.
- 田島公(1985・5) 「日本の律令国家の『賓礼』-外交儀礼よりみた天皇と太政官」 『史林』68-3, p369-420.
- 中野高行(2008) 「日本古代における外国使節処遇の決定主体」 『日本古代の外交制度史』 岩田書院, p233-236.
- 浜田久美子(2003) 「古代日本における賓礼の受容」 『日本と渤海の古代史』 山川出版社, p143-154.
- 浜田久美子(2011) 「外交儀礼の形成」 『日本古代の外交儀礼と渤海』 同成社, p47-80.

- 東野治之(2007) 「遣隋使から遣唐使へ」『遣唐使』岩波新書, p6-21.
- 平野卓治(1985) 「律令位階制と「諸蕃」」『日本古代の政治と制度』続群書類聚完成会, p97-110.
- 平間充子(2005・12) 「煬帝の百戲と日本の正月中旬饗宴儀礼 -儀礼における奏樂の政治的意義について-」『東洋音楽研究』71, p47-51.
- 藤森健太郎(1991・12) 「日本古代元日朝賀儀礼の特質」『史学』, p76-82.
- 藤原茂樹(1999・2) 「奈良時代の踏歌-夜の歩み-」『芸文研究』77, p87-95.
- 森克己(2008) 「外国使節と外国商人の差別」『新編森克己著作集一 新訂日宋貿易の研究』勉誠出版, p22-26.
- 吉田孝・大隅清陽・佐々木恵介(1995) 「九十世紀の日本-平安京」『岩波講座日本通史 第5巻 古代4』岩波書店, p47-48.
- 吉田隆英(1986・10) 「元宵走百病考--明代を中心にして」『東方宗教』68, p65-85.

접 수 일: 6월 30일

심사완료: 7월 25일

게재결정: 7월 29일

<Abstract>

Balhae envoys & Bugaku exchange in Heian period

-Focusing on New Year's royal rituals-

This paper is the study of Japanese royal court dance and music contacting Balhae envoys, focusing on the New Year's royal ritual of the Heian period. In the early Heian period, Japan had accommodated the many institutions and cultural relics from the Tang Dynasty, and declared its own imperialism was trying to build the discriminate-barbarism of Japan. According to the "Konin-Dairisiki", Balhae envoys were attending the New Year's royal ritual, Ganjitusetie Aoumanosetie Toukanosetie Zarai, as a part of the Japanese diplomatic strategy. In case of Zarai there was no court dance and music. But the other case, Ganjitusetie had danced Banzaigaku Ziku Yuntengaku Gaden Engigaku, Aoumanosetie had danced Koteihazingaku Gyokusyugoteika Sekihakutorika Banzaigaku Kisyungaku, Toukanosetie had danced Toka Banzaigaku Gaden Ziku Engigaku. Therefore, I guess that Balhae envoys was actively contact to Japanese royal court dance and music in the New Year's royal events. Japan had welcomed Balhae envoys with diplomatic courtesy and court ceremony, and visually embodied their own Reigakusiso & Imperialism with playing the royal court dance and music. Balhae envoys were communicating actively through the royal court dance and music in a variety of events. And 'Shinmaka', the dance of Balhae, became settling into Japanese royal court dance and music. But on the other hand, we can see that Japanese dancer & Bugaku were flowing into the Balhae and that it was propagated to Tang. In addition, the Japanese royal court dance and music were inflowing directly to the Tang Dynasty, through the Kentoshi. Heian Japanese royal court dance and music were being spread in Northeast Asia through international exchange.